



이노비즈협회, 중·선도기업 방문해 벤치마킹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중국 혁신산업 선도기업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드론, 전기차, 스마트물류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선도기업을 직접 방문해 벤치마킹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수에는 정광천 협회장(오른쪽 네번째)과 임형택 글로벌위원장을 비롯해 이노비즈기업 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노비즈협회



중기중앙회, 韓-日 2세 경영인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KBIZ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 제2기 졸업생들이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부 중소기업가동우회를 찾아 한·일 양국 2세 경영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차세대 CEO스쿨 심화과정’의 졸업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캠코, 경·공매 정보플랫폼과 공매시장 활성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민간 경·공매 정보 플랫폼 총 9개사와 함께 ‘공매데이터 기반 공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석한 캠코 국유재산본부 총괄이사(오른쪽 네 번째)와 경공매 정보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협약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캠코



유투브-선플재단,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선언

유투브와 선플재단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잠시만요 캠페인 공동 선언 및 시상식을 열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고 17일 밝혔다. (왼쪽부터)황성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총괄,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투브



지씨셀, ‘세계 제대혈의 날’ 맞아 기념행사 열어

지씨셀은 지난 14일 세계 제대혈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에 위치한 셀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대혈의 의학적 가치와 보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대혈 기증 및 보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씨셀

이용배 “3분기 수주잔고 29.6조… 협력업체 덕분”

〈현대로템 대표이사〉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
탄력적 공급망 체계 구축하고
미래사업 성공 함께 이룰 것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현대로템은 국내외 활발한 수주 활동을 통해 3분기 기준 수주잔고 29조 6000억원을 달성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협력업체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며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현대로템에 따르면 이용배 사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에서 “협력업체 여러분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배 대표이사(셋째줄 왼쪽 열세번째)와 현대로템 주요 임원들이 ‘2025 현대로템 파트너스 데이’에서 협력업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로템

또한 “현대로템의 성과는 곧 협력업체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사업의 성공을 함께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협력업체에 발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말 2조1000억 원 대비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회사는 4분기 추가발주까지만 영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 주력 제품인 K2 전

기아, 평택에 모빌리티 복합거점 개소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직영점과
PVB 익스피리언스 센터 열어

기아가 인증중고차부터 전동화 라인업, PBV까지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복합거점을 평택에 열었다. 경기도와 평택시의 적극적 투자 유치 전략이 더해지며 경기 남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기아는 1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일대에서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과 브랜드 최초의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돌입했다. 약 1.9만평 규모 부지에 조성된 해당 거점은 지상 4층, 실내·외 전시장과 체험 공간을 갖춘 국내 최대급 미래형 모빌리티 공간이다.

1층 인증중고차 센터는 실내·외 1400여 대를 전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아가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 및 ‘PVB 익스피리언스 센터’ 개소했다.

/기아

시설로, 온라인 검색부터 실차 확인·전문 상담·전용 시승까지 구매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한다. 약 800m 규모의 전용 시승 트랙에는 경사로·요철 등 실제 주행 환경을 구현해 차량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V 라운지, 대형 컨피규레이터, 애프터마켓 제품을 체험하는 ‘기아 샵’도 운영된다.

2층에 마련된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기아의 목적기반차량(PBV) 전략을 한눈에 보여주는 첫 상설 공간이다.

/이승용 기자

제일약품 “자큐보 내년 매출 1700억 목표”

‘자큐보 비전 선포식’ 열어

제일약품은 지난 13~14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5 자큐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사의 핵심 전략 품목인 자큐보정의 중장기 목표와 영업·마케팅 방향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업·마케팅·학술·R&D 등 임직원 약 600여 명이 참석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자큐보는 올해 700억원 매출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6년 매출 목표로 1700억원을 제시하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향을 명확히 했다.

선포식은 자큐보정의 성공적인 출시와 강력한 시장 반응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확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직별 계획 공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마케팅 브랜드 캠페인 및 시장 분석 공유, 2025년 영업 실적 리마인드 및 주요 성과 브리핑, 2026년 영업 목표 및 전략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 영업 리마인드 세션에서는 자큐보정 출시 이후 병원 코드 오픈·DC 승인 현황, 채널별 성과 지표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는 제일약품 65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엔진”이라며 “부문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이 강화된다면 자큐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전, ‘CES 혁신상’ 5개 부문 석권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 전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을 앞두고 CES 혁신상 5개 부문을 석권했다.

한전은 17일 CES 주최기관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AI 기반 변전설비 예방진단 솔루션(SEDA)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HESS) ▲변압기 부싱 진단장치 ▲전력설비 광학진단시스템 ▲분산 에너지 보안기술 등 총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전력유틸리티 기업 최초의 수상으로, 한전이 전력 인프라 중심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수상 기술 상당수는 연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이미 현장에서 적용·운영 중이다. 전력 설비의 고장 예방, 재난·정전 리스크 최소화, 분산형 전원 확대에 따른 보안 강화 등 한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돼 실효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전은 송·변전망, 배전설비 등 국가 전력망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변전설비의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하는 SEDA는 한전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통해 고장 확률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주요 변전소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관장, ‘UN청소년환경총회’ 후원

약 5000만원 상당 제품·기부금

정관장이 ‘2025 UN청소년환경총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실천에 동참했다. 정관장은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과 공동 주최한 이번 총회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홍삼정’ 관련 제품과 기부금을 지원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UN청소년환경총회’는 지난 11월 15~16일 성남시에서 열렸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모인 유엔 방식으로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



정관장이 ‘2025 UN청소년환경총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저감 실천에 동참했다.

/KGC인삼공사

식 의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참가 청소년들은 각국 대표단 역할을 맡아 실천 가능한 해법을 도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HS화성◇승진 △토목환경사업본부 장 정의송 ◇보직변경△전략실장 최혁 △재무실장 소병국 △자금팀장 김영민 △회계팀장 천세진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부음

▲장재현씨 별세, 이소원씨 남편상, 장일범·장소연(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 팀 부사장)씨 부친상, 윤성식씨 장인상, 지도은씨 시부상 =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